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11월

## 전문가 기고

ESG, 힘겨워도 끝까지 달리소서

## 주요 이슈

ESG 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 ESG 동향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주요 통계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장창민 차장

# ESG, 힘겨워도 끝까지 달리소서

“신성하게 태어났으나, 우선으로 양육되고 궤변 속에 팔려나갔던...”. 세계적인 석학 애스워드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쓴 칼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편히 잠드소서’의 첫 문장이다.

그의 칼럼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다. 10년간 별다른 도전 없이 무럭무럭 성장했던 ESG가 앞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언을 ‘대놓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ESG가 잘 작동했던 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혐오와 테크 기업들의 ESG 우위 때문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SG 투자는 위험을 줄이고 비용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의 실패와 비슷한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힐난했다.

ESG가 기업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측정하지 못하며 경로도 불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ESG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업 확장은 어려워지고 비용은 증가하며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다모다란 교수는 ESG의 딜레마를 이렇게 도식화했다. ‘E의 딜레마’. 10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수조 달러가 투자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S의 딜레마’. ESG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G의 딜레마’.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개념은 사실상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모다란 교수뿐만이 아니다. ESG는 여기저기서 공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반(反) ESG’ 정서마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최

근 ‘ESG’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대표적 사례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강력한 ESG 관련 규제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독일과 영국의 대표적 자동차회사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전기차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고 나섰다.

‘반 ESG’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상기후를 초래하더라도 우선 당장 먹고사는 게 더 급하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불완전한 ESG의 약점을 잘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게 있다.(보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모다란 교수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E의 중요성’. 탄소배출 감축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를 방지할 경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 소형 원자로 등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헤어질 결심은 이미 끝났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S의 중요성’. 역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돈만 잘 벌고 문어발처럼 사업만 키운다고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다. 사회와 호흡하고 소통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G의 중요성’. 이것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뼈대가 지배구조다. 기업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기업인의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는 다모다란 교수에게 이런 말을 돌려주고 싶다. ‘ESG, 힘겨워도 끝까지 달리소서’

# ESG 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지속가능경영원

최근 ESG 기업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도입시기 연기” 일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 28일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내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SG 공시 중요한 것 알지만(88.0%)... 외부 전문가 도움 필수적(90.6%), 내부 인력만으로 공시하고 있는 곳은 9.4%에 불과했다.

\*SCOPE3 배출량 공시... ”준비 안 됐다”(44.0%), ”대기업도 측정하기 힘들어... 의무화 일정 충분히 미뤄야”(61.0%)

\*ISSB 기준 도입관련... ”국내상황 맞춰 완화 도입해야”(74.0%), ”연결기준 공시 시기상조”(77.0%)

“ESG 글로벌표준 속속 확정” 뉴스가 올해 여름을 가득 메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들려온 이 소식은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국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알려 주었다.

기업의 ESG 도입이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된 유럽과 북미의 경우 정보공개 의무 기준이 이제 막 결정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뒤늦게 시작한 국내 기업의 경우 ESG 기업공시 의무화는 유럽과 북미의 공시기준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상 시행 시기는 정해졌으나(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방법과 수준의 결정에 있어 논의할 이슈가 상당히 남아 있다. EU와 북미의 ESG관련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과 관련기관은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기에 숨이 벅차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ESG 의무공시의 도입 시기를 3~4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급기야 10월16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세 가지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준을 제정할 것
- 대상기업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할 것
-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함

지금 상태로는 계획된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것이고 금융위원회의 지침은 물론 KSSB가 준비중인 국내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글로벌표준에 따라 국내 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고 나아가야 할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먼저 확정된 글로벌 공시기준을 간략히 개관해 본 후 국내 기업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 1. 유럽연합 기업공시기준의 특징 및 도입 현황

2017년부터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시행해온 EU는 2019년 EU 그린딜(2050년 탄소중립달성)을 공표하면서 비재무 정보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22년 11월28일 NFRD를 개정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최종 승인했다. CSRD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각 회원국은 18개월 이내에 자국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1차 적용대상 기업은 2024년 사업에 대해 2025년부터 의무공시를 시행해야 하며, 공시의무대

상기업은 2029년(FY28)까지 확대된다. CSRD 이행을 위한 EU 지속가능 보고표준(ESRS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은 2022년 11월 공개되었고 올해 7월 EU집행위에서 채택되었다. ESRS는 CSRD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으로서 이중중대성 기준의 도입을 포함하여 기업이 공시할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EU법과 이니셔티브는 물론 TCFD, ISSB, GRI 와의 상호 운영성(interoperability)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보고 대상기업은 EU에 기반을 둔 대기업과 상장기업 등 약 5만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EU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점도 포함된다.

## 2. 북미 기업공시 기준의 특징 및 도입 현황

2023년 6월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국제 공시기준 표준안이 발표되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곧 기후공시 의무화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책이 주도하기 보다는 개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위주로 전개돼 왔으나, 이제는 표준화된 공시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다. EU의 공시기준인 ESRS가 다루는 분야가 포괄적인 반면 미국

의 ESG는 아직까지는 단일중대성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 위주로 되어 있다. 미국 상장사와 관련기업의 ESG 공시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상장대기업은 2024년부터며, 2025년부터 협력사가 포함되고 상장중소기업은 2025년부터며, 2026년부터 협력사가 포함된다) 최근 미국 ESG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환경(E)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화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범위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 협력사의 활동도 평가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책임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RE100, Net Zero, 탄소네거티브 등 기후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사용과 탄소저감 및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고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관련된 리스크 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을 위한 데이터 공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S) 부문은 주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근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SEC의 인적자본 공시 의무화에 따라 미 상장사는 인적자본 관련 데이터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지배구조(G)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내 협력사에도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윤리경영 압박이 증가하고 사이버안보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대한 요구도 주요 이슈이다. SEC는 지난 7월 26일 사이버 공격 시 대응과 관련사안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다.

## ESRS vs IFRS

### 1. 공시 기준서 구성, 제정 현황 및 동향

| 구분               | ESRS (EFRAG)  | IFRS Sustainability (ISSB)  |
|------------------|---|---|
| 공시 기준서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원칙 및 일반공시 요구 사항 (ESRS 1, 2)</li> <li>ESG 토픽 (총 10개)<br/>:E(환경) 1~5, S(사회) 1~4, G(지배구조) 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FRS Sustainability1 (일반요구사항)</li> <li>IFRS Sustainability2 (기후관련 공시)</li> </ul>   |
| 제정 현황 및 향후 추가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년 7월 31일 ESRS 1st Set 최종 공시기준서 확정</li> <li>24년 6월까지 ESRS 2nd Set 채택 예정<br/>:섹터별* 기준, 중소기업/Non-EU 기준 (*10산업 기준서 개발 선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년 6월 26일 S1, S2 최종 공시기준서 확정</li> <li>제무제표 연결성, Scope 3 측정방법 및 범위 구체화 예정 (Global Partners와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제공)</li> <li>추가 토픽별 기준서 발표 예정 : 생물다양성, 인적자본, 인권 등</li> </ul> |
| 다른 지침 수용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RI - '가능한 완전 일치' 작업 중</li> <li>ISSB - 부분 상호 운영성 논의 중 (상호보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세기준서가 없는 경우(S2를 제외한 중대토픽) GRI, ESRS 참조 가능 (상호보완)</li> </ul>   |

###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 구분         | ESRS (EFRAG)   | IFRS Sustainability (ISSB)  |
|------------|--|---|
| Scope 1,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기준<sup>1</sup> 지배기업+종속기업 및 운영통제력 (operational control)이 있는 관계/공동기업</li> <li>투자기업<sup>2</sup> : Scope 1, 2 개별 및 합산 공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기준 지배기업+종속기업 및 관계/공동기업, 투자기업*<br/>: Scope 1, 2 개별 공시 *GHG protocol 적용</li> </ul> |
| Scope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cope 3 카테고리 명시한 총 합계 및 중요한 배출량 카테고리별 세분화 공시</li> </ul>   |   |

1) consolidated accounting group    2) invertees such associates, joint ventures, or unconsolidated subsidiaries

※ 출처 : 삼일PwC ESG 플랫폼 :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방안(23.09)

## 3. 대응방안

의무공시 적용대상 기업을 각국의 관할당국이 결정하는 IFRS 기준은 강제력이 없는 반면, EU의 ESRS 기준은 적용대상 기업이 확정(임직원 250명, 매출 4000만유로, 총자산 2000만 유로 초과 중 2개만 해당해도 적용대상이 됨)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다. 다시말하면 ‘국내 ESG 기업공시 의무화 도입 연기’ 결정과 관계없이 EU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ESRS기준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ESG 공시가 필요하거나 가까운 시일에 필요하게 될 국내 기업은 ‘기업공시 의무화 도입연기’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제까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식별하고 ESG데이터 관리 IT시스템화 도입 등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개별기업의 ‘ESG 기업공시 의무화 준비사항’들을 정리해본다.

### 1. 공시의무화 대상여부 확인

(중소기업과 지사가 소재한 해당국가의 입법 모니터링 및 EU내 매출액 모니터링)

### 2. 공급망 온실가스관리, 공급망 인권관리, 연결기준 데이터 수집과 공급망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시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시스템 구축 필요

### 3. 공시주제 선정에 대한 선정근거, 특히 EU의 경우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

### 4. 자격조건이 되는 제3자 독립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데이터 관리 통제를 위한 R&R 정립필요

### 5. 향후 발표될 산업별 기준이나 중소기업용/non EU 기업용 기준들 계속 모니터링

### 6. ESG 정보공시 거버넌스 구축 : ESG 정보공시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체계구축

(ESG데이터의 생성/집계/승인에 대한 과정과 권한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지침 마련)

### 7. 주요 이행과제 및 이슈 대응

(양적기준과 중요성 기준에 의한 연결기준 공시 / 단기,중기,장기적 기후변화 동인 분석과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무영향 산출)

### 8. IT 시스템화

(법적책임 및 그린워싱 방지목적)

---

## 참고자료

- 미국 ESG 트렌드와 공급망에 주는 시사점\_KOTRA (2023.08)
-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방안\_삼일PwC ESG 플랫폼(2023.09)
- ESG정보공시 세미나\_삼정KPMG(2023.07)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_딜로이트(2023.06)
  -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_대한상공회의소(2023.08)
  - ESG 공시, 모호함은 언제 해결되나\_IMPACT ON(박란희의 talktalk)
-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지난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SET 2의 채택을 2년 연기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12월에는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은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전환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인 기업 경영 및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 해외 ESG 뉴스

### EU도 친환경 기술에 원전 포함 가닥... 전세계 CFE 확산되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815334955901>  
머니투데이 | 2023.10.18.

### EU, ESRS 부문별 표준 채택일 2년 연기... 기업 부담 경감 목적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23>  
임팩트온 | 2023.10.23.

### KPMG “기업 4곳 중 1곳만이 ESG 공시 준비됐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14>  
국세신문 | 2023.10.25.

### “기후 망치는 회사에서 일 못해”... 美·英서 번지는 ‘기후퇴사’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81426>  
더나은미래 | 2023.10.30.

### 애플·아마존·나이키, 글로벌 공급망 탈탄소화 ‘맞손’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2>  
ESG경제 | 2023.10.31.

## 국내 ESG 뉴스

### KCGS, 평가등급 나왔다... ESG 관행 개선됐으나 기업간 격차 늘어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80>  
임팩트온 | 2023.10.30.

### 이복현 금감원장, ESG·지분매각 사전공시 기업부담 최소화할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510343668303>  
머니투데이 | 2023.10.25.

###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활용 속도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03002109958063003&ref=naver](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03002109958063003&ref=naver)  
디지털타임스 | 2023.10.30.

### 금융위 “내년 1분기 국내기업 ESG 공시기준 구체화” 거래소 “공시 규제부담 완화 지원”

[https://www.ftimes.com/html/view.php?ud=202310312015042898179ad43907\\_18](https://www.ftimes.com/html/view.php?ud=202310312015042898179ad43907_18)  
한국금융신문 | 2023.10.31.

###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033900530?input=1195m>  
연합뉴스 | 2023.11.07.

# ESG 통계 지표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        | '23.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녹색채권   | 221    | 227   | 231   | 249   | 247   | 249   | 257   | 268   |
| 사회적채권  | 1,138  | 1,164 | 1,201 | 1,246 | 1,281 | 1,314 | 1,371 | 1,394 |
| 지속가능채권 | 299    | 297   | 290   | 297   | 292   | 287   | 294   | 289   |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천억 원)

|        | '23.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녹색채권   | 210    | 215   | 217   | 243   | 241   | 241   | 249   | 251   |
| 사회적채권  | 1,638  | 1,666 | 1,713 | 1,768 | 1,803 | 1,849 | 1,898 | 1,928 |
| 지속가능채권 | 212    | 211   | 214   | 217   | 216   | 209   | 212   | 207   |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23.10.31)

(단위: 건)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10 |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8    | 14   | 20   | 38   | 78   | 131  | 159      |

###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23.10.31)

(단위: 건)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10 |
|---------|------|------|------|------|------|------|----------|
| 지배구조보고서 | 76   | 101  | 213  | 224  | 231  | 355  | 380      |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3.11.) \*CF100 참여 기업(기관) 수: 141개 ('23.10.)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10 |
|-----|------|------|------|------|------|------|----------|
| 국내  | -    | -    | -    | 6    | 14   | 27   | 35       |
| 글로벌 | 101  | 141  | 204  | 269  | 335  | 393  | 422      |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2월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3월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4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5월 |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6월 |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7월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8월 | 지속가능 정보공시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9월 | TCFD 개요 및 적용 현황

10월 | K-Taxonomy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1월 | ESG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12월 | 생물다양성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4 | E. whk@korcham.net